

한국 스님들, 중국 선사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어

15년 만에 소설 <선> 재출간한 고은 시인

“저쪽에 있는 거 다시 여기로 놓고 싶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위해 '선(禪)'을 한다. 옛 선 사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많은 수행자들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하게 정진해 왔다. 최근에는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제품 디자인이 '선(禪)'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우리가 손에서 한시도 놓지 못하는 아이폰의 배경에 '선'이 있었다는 말이다.

한국문학의 큰 산이라 불리는 시인 고은. 그는 "선은 그냥 여기저기 도처에 편재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詩)가 자신의 종교요, 시인이라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고은 시인이 최근 15년 만에 소설 <선>을 재출간했다. 책은 초조 달마에서부터 육조 혜능까지 중국 선종 6대조의 선사들의 치열했던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고은 시인에게 과연 '선'이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다.

-소설 <선>을 15년 만에 재출간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은의 작품세계는 '선(禪)'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에서의 '선'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나.

나는 수행 생활에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선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선의 흐름들을 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내게는 산중 생활을 할 때 선에 대한 강렬한 집중을 바쳤던 기억은 있습니다. <선>도 그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쓰게 된 것입니다. 1950년 후반 선배 시인인 조지훈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 분은 한암 스님의 영향으로 '선'에 대한 남다른 깊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 조지훈 시인은 '중국선', 저는 '고려선'에 대해 함께 집필을 해보자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조지훈 시인이 6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산중생활을 마치고 속세로 돌아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운허 스님이 제게 <화엄경>의 '입법계품'으로 서사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소설 <어린 나그네>를 집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지훈 시인과의 약속이 떠올랐고, 본래 조지훈 시인이 쓰려던 '중국선'을 제가 맡아 쓰게 됐습니다.

다만, 역사기술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소설로 엮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스즈키 스님으로부터 유럽에는 선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선'이 문학평식을 통해 넓혀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잘나에 있지도 않고 햇빛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도처에 편재해 있을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간화선에만 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든 현대인들이 '참 나'를 찾기

위해 점차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선(禪)'은 서양인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서양에서는 '선'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재출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선은 달마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본래 우주의 것일 겁니다. 우리는 바보소리에 의해서도 선을 봐야하고, 또 세상의 모든 형상을 통해서도 선을 만나야 합니다. 15년 전에는 선은 이쪽(동양)에는 있지만, 저쪽(서양)에는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쪽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다 놓고 싶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남방불교, 중국불교, 일본불교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한국불교의 '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지구상 도처에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5년 전 <선>을 출간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선이 많이 대중화 돼 있습니다. 선은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명상법, 치유의 방책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림하는 간화선 같은 비대중적인 선만이 선은 아닙니다. 한국선은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 불교계 안에서도 간화선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중 선방에서부터 자신이 될 하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선은 이미 고대서부터 서양에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18세기부터 서양의 여러 나라에 일본의 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확실하지 않고 있지만)세상에서는 한국이 자아를 알고 있는 지조차 몰랐습니다. 때문에 많은 서양인들은 한국의 선이 중국이나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세 500년 동안 한국은 자신을 폐쇄하고 오직 중국에만 경도되어 있어 자아를 확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선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임제선(臨濟禪)은 본래 중국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특한 선인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현재의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장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중국 법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선사의 법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송시대의 중국 승려 앵무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서양에서 한국선을 몰라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일본강점기를 비롯해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자아를 형성시키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숭산 스님 등을 통해 이제 막 세상에 한국의 자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

지만 세월이 흘러 자손만대에 가면 중국이나 일본의 선보다 한국에서 독실하게 이어져 온 이것이, 선의 커다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계가 국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차원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도 출범시켰다. 한국불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조계종의 이번 결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는 몇 번의 결사가 있었고, 또 관참은 성과를 얻은 결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광사가 그랬고, 강진 백련사의 백련결사 등도 잘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담배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버린 결사도 있었습니다. 나는 결사를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합니다.

-‘시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었다. 이번 소설 <선>을 비롯해, 시 외에도 평론, 에세이, 번역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넘나들며 집필을 하고 있는데.

내 종교는 '시'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도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라는 단 한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열린 공간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때에는 노래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지, 옛날의 틀에 의한 다른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식과 장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늦게 장르가 정식화되면서 사람들은 그 장르에 속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편안함으로부터 불편한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문학’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문학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문학은 앞으로도 많이 해외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로 갔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져갈 겁니다. 세상은 부정할 것도 많고 긍정할 것도 많습니다. 나는 한쪽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를 딱 두 개로만 쪼개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집필계획은 어떠한가.
너무 할 것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른 걸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재출간된 <선>을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는가.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읽는 것이 아마 달콤한 결음은 아닐 겁니다. 조금은 고행의 여정이 따라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은정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화제의 책!!!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화제의 신간

2011 KBS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에 출연한 폴 니터 교수의 신작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떠한 자세로 실천하고 다가서야 하는지를 그 어느 사상가, 실천가보다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_ 진재 스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평생 니터 교수의 신학적 작업을 추동해 온 두 가지 실천적 관심, 즉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해방적 관심과 헌신, 그리고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불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_ 김희성

글: 폴 니터(Paul F. Knitter)
정경일·이창엽 옮김
정가 19,000원

클리어마인드 문의 02-2198-5151